

4월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수준'

11.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추진력 더 속도 낼 듯

지난달 15~29세 청년실업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공약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갖 출범한 상황인 만큼 시사점이 크다. 특히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4월 역대 최고수치다. 실업자 구직 기간 기준이 4주로 변경된 1999년 6월 이후 4월 청년실업률이 11%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증가하지만 4월 사정은 다르다.

청년층 고용률이 전년 동월보다 0.7%포인트 오르지 않았으나 20대로 한 정할 경우 0.2%포인트 하락했다. 20대는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만 오르는 셈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대는 타연령층에 비해 고용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제조업이나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에 민간 채용 수요가 부족해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월의 경우 기업들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한창인 시점이지만 청년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민간 채용 전반이 위축됐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이 신정부가 일자리 공

약을 실행하는데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부문이다. 민간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증가시킨다.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가 활성화되고 이를 기회로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그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서관,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하달할 만큼 공약 실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을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단편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 부담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5년간 약 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호국보훈의 달 특별 할인 실시

국가유공자·유족 대상, 항공운임 30% 할인

이스타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을 시행한다.

이스타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내 국내선 전 구간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항공운임의 30%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특별할인 대상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신분증 및 유족증 소지자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과 국가유공자 동반 보호자 1명 등이다.

자세한 특별할인 대상자는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starjet.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특별할인 예약은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

한다.

특별할인 받기 위해서는 출발지 공항에서 할인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오는 31일까지 창립10주년 맞이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당신이 만드는 이스타항공'을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1차 고객 설문조사에 이어 이번 2차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 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해당 설문 참여 시 추첨을 통해 국내선 왕복항공권, 모험항공기, 우산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 제공된다. /인재용 기자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실태조사·평가 기준' 고시 제정

농진청, 각 분야별 세부 계획·실행 기준·체계적 추진 마련

농촌진흥청은 11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환경자원 조사 및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위임업무인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시행 기준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친환경농업 실행

을 위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조사·평가·보고 지침과 더불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농업환경 보전 정책과 연계해 농경지, 농업용수, 농업투입재,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자원순환 사용실태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농업환경자원 조사 및 평가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 이행한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고시 제정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조사 및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세부 계획과 실행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전국 단위 토양검정 사업과 더불어 농경지, 농업용수 및 비료 사용실태 등 6개 핵심 분야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고시와 더불어 농업환경 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그리고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조남준 연구운영과장은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기준 마련으로 '미래 농업환경 보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한은 전북본부, 고산초 학생 초청 현장학습 나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1일 완주군 고산면 소재 고산초등학교 3·6학년 학생 및 교사를 초청해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등 경제교육, 전북본부 영업장 및 시설 견학, '화폐속의 패션' 전시관 관람, 남부시장 장보기 체험학습, 전

통문화체험(초코파이 만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도 교육청과 협조해 실시하는 두 번째 행사이며, 도내 학생들의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향후에도 초청 현장학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외식업 실태와 지원방안 보고서 발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맞춤형 보고서인 '전북 중소기업 이슈&포커스 제4호'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지원시책에서 소외된 전북지역 외식업종 소상공인 실태와 지원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외식산업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외식업종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의 외식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외식업 업소당 인구는 42.7명으로 유사지역 평균에 비해 5.2

명(13.9%)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경영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계속됨에 따라 지원에 소외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은 의외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원과 도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진원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전북 중소기업 이슈&포커스'를 JBBA 뉴스테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농어촌공 전북, 농업용수 공급 위한 현장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11일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임실 오봉저수지에서 영농급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3개월 강우량이 평년(559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올 한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재, 전북에 소재한 공사관리 417개 저수지 저수율이 74.7%로 평년대비 5.0%가 적은 상태이지만, 한국농어촌

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동절기부터 저수량 부족 저수지에 대해 양수저류 등 다각적인 수자원 확보 노력을 통해 영농지원을 위한 필요용수는 확보한 상태이다.

김준재 본부장은 "향후에도 강우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저수지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하수 개발 및 하천을 통해 버려지는 물의 재활용, 저류공간 확보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